아무리 속이 상해도 주인공에 넣어 한번 돌려놔라

☞ 17면에서 계속

에 맡겨 놓는 것으로도 화두 참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런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모든 것을 색만 보고 급급하게 돌아가지 말라. 주인공에 일임하면 그렇게 화목하게 되고, 남을 죽이지 않게 되고, 욕심이 안 나고 사상(四相)이 안 생기고, 모든 욕심이, 삼독이 빠진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의 그 무전자의 능력으로 하여금, 무전자는 부동하지만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여금 유전자는 수가 없이 생기는 거죠. 수가 없이. 그래서 갖가지로 생기죠. 금방 아팠다가 금방 이게 가난하고 돈도 없고 뭐, 고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사의 일도 안되고 뭐, 술집을 하는데 술도 안 팔리고 밥집을 하는데 밥도 안 팔리고, 전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주인공에다가만 맡기면 이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거기에는 수가 없이 그것이 다양하게, 아무리 꺼내도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죠.

그러면 그게 뭐냐? 유전자로 해서 분신이 화한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유전자로 하여금 이 전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으로 그냥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체가 없는 겁니다. 수천수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손이 없는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되고, 그 손이 된다면 이거는 아무리 손이 많이 있어서 많이 쓴다 하더라도 쓴 사이 없이 쓴 것이고, 그 손은 되남는 겁니다.

그걸 떡으로 비유한다면, 부처님께선 공양한 그릇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떡 하나라면 그 떡을 가지고 이 세상만사에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씀씀이가 되는 거를 그 떡 하나로 다 해결을 하고 떡 하나가 되남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대로 고정, 즉 말하자면 부동하게 그냥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니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돼 있어야 한 가지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할 텐데, 천차만별로 돼 있으니 이것이 다양하게 여여하게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요런 것이 요렇다, 조런 것이 조렇다 하고 얘길 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이렇게, 화엄경이니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아함경이니, 이 모두를 해놓은 게 바로 여러분의 근기에 따라서, 어느 거든지 하나만 그것을 깨치면 바로 여러 가지가 다 주산이 놔진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칠백 공안이 다 도의 문이니라." 한 것이, "그것이 바로 화두고 그러니라." 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 앞에 화두를 또 준다면…. 이 공한, 이 사대가 공한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나오고부터 그대로 화두며 그것이 진리예요. 그 사대가 공한 이것이 진리거늘 여기에다가 또 화두를 남한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건 근래에 있는 거예요. 전자의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냥 네가 생긴 것이 태초요, 네가 생긴 것이 화두니라.

그런데 딴 사람이 내 밥을 대신 먹어 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항상 내가 잘되는 걸 타의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전자의 석존으로부터 가르쳐 내려오신 조사 스님네들에 그 누가 되는 겁니다, 첫째. 둘째, 내가 이롭지 못하고 세세생생에 끄달릴 테니 얼마나 누가 되는 거냐. 얼마나 불충이냐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서 내가 이렇게 생긴, 이 나를 낳아 준 육신 부모들한테도 누가 되는 거죠, 전부. 나 하나만 깨치면 전체가 다 공해서 일심으로, 공용으로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집들도 다 유유히 편리하게 돌아가는데 아, 나 하나가 그렇게 모르니 전부 끄달려서 인과응보와 유전성이 그냥 얽히고설켜서 뭐, 녹아지기는, 풀어지기는커녕 외려 덧붙여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 우리가 녹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덧붙여 놓는 셈이다 이겁니다, 몰락 놓지 않는다면.

> **몰락 그냥 놔 버리면 스르르르 봄이 와서**
> **얼음장 같은 그 딴딴한 마음이**
> **다 녹아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보셨죠?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녹이려고 끓는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어 보십시오. 잠깐 그 거죽만 이렇게 녹는 듯했다가 다시 끓는 물 한 바가지 부은 것이 되얼어서 같이 두더기가 돼 버립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몰락 그냥 놔 버리면, 봄이 오면 스스로서 끓는 물 한 바가지 떠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서, 그 딴딴한 얼음은 스스로서 녹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이 상해도 주인공에 넣어 한번 돌려놔라. 그러면은 금방 칼이라도 있으면 찔러 죽이리만큼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르르르 봄이 와서 얼음장 같은 그 딴딴한 마음이 다 녹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대오온이 공해서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즉 말하자면 삼심이 공해서 일심으로써 이렇게 돌아가니 모든 걸, 너한테서 나오는 거 너한테다 놔라 이겁니다. 그것이 화두이자 바로 길이니까. 진리니까.

키우는 애완견이 축생고에서 벗어나길…

질문 요즘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동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 곁에 있으니 마음공부를 하기가 더 쉽겠죠? 저도 애완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도 빨리 진화돼서 축생고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여러분 가까이에 개나 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말, 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보고 왔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짐승들도 몇 안 되지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인간처럼, 인간이 돼야만이 벗어날 생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발로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항상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겁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울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그렇게 바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나은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해서 항상 생명과 몸을 다 바쳐서 때로는 그 식구가 다 죽을 거를 면케 해 주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죠.

옛날에도 내가 말했죠. 어느 대갓집에서 농사를 지으면 항상 이 쌀을 갖다 놓고선 그 싸래기 빻은 거는 항상 쥐들 먹으라고 풀어 놔 줬다고요. 그 주인이 지혜가 풍부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먹게 놔두니까 쌀을 건드리지를 않았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식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쥐들이 보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많이 배웠어요, 쥐들이.

그래서 쥐 모습을 벗어 버리려고 무지하게 앨 쓰고 가던 중 어느 날, 그 옛날에는 기와집을 하면은 그 진흙을 갖다가 그냥 포겸포겸 놓아 가지고는 기와를 올렸더랍니다. 근데 그게 오래돼서 몽땅 가라앉으니깐, 자는데 그 식구가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쥐 새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막 삑삑거리면서 춤을 췄답니다. 막 춤을 추니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여러 마리가 그러니깐 '이거 잠 못 자겠네.' 하곤 나왔더랍니다. "얘, 이거 구경해라. 쥐들이 춤춘다." 하고 그러니깐 식구가 다 나왔다 이겁니다. 다 나와서 그 구경을 하는 도중에 지붕은 폴딱 그냥 가라앉아 버렸죠. 그렇게 지붕이 가라앉으니깐 그때서야 춤을 멈추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 헤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새끼를 놔 놓고는 금방 죽더랍니다. 그래서 '왜 죽었나. 새끼를 놔 놓고 죽었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우유를 먹이면서 인제 새끼들을 기르는데 개 어미가 죽고 난 뒤 바로 애가 들어섰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애를 기르는 데도 그렇게 영리하고 착하고 의리와 도의를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밝고 이름이 빛이 나더랍니다. 그 개는 순간의 모습이 개였지만 순간에 바뀌어서 사람으로 그렇게 탄생을 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앨 써도 저놈의 강아지 왜 짖느냐고 그냥 듣기 싫다고 몽둥이를 가지곤 그냥 때리고 돌맹이질을 하고 그러거든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아이, 도둑만 알지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와서 사람을 헤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그 개는 수 년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인간의 도리를 다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냥 자꾸 짖고 하는 건데 '저놈의 개가 짖어서 잠도 못 자게 한다' 고 돌맹이로 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뛰어 달아나갔다 또 와서 그러고 또 와서 그러고 그러더니 그냥 그 식구들을 위해서 개가 그냥 죽었더랍니다. 피를 토하고 죽었더랍니다.

근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시고 "어, 이 집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개는 모습을 벗었구나." 이러시면서 "허허, 그것 참 기특하구나." 이러면서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지하게 인연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배우고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러곤 그냥 말을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선 그 개를 얼른 거둬다가 묻어 줬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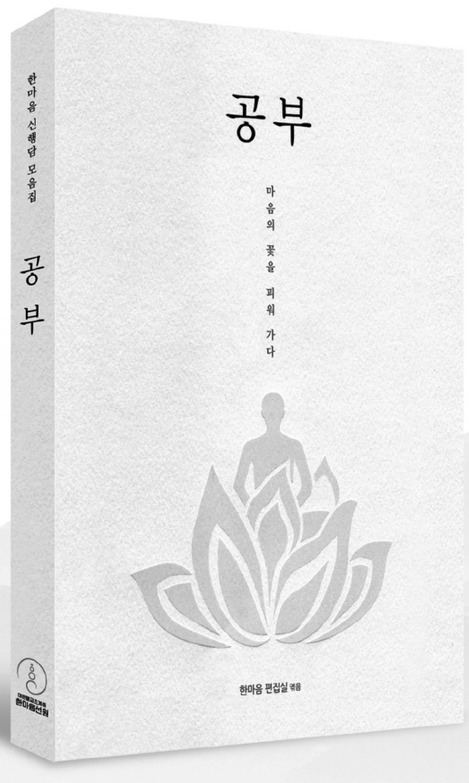
그렇듯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발로 걷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과 자기 모습을 다 버리고 나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간이 되면은, 중생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너는 곤충에 불과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진화가 돼서 사람은 됐으나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요? 그렇게 지은 인연밖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입고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구조가 완벽해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깐 이 참,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그거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조복하라. 네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둘이 아니게 조복하라." 그 모습 속에 있는 곤충들이 이 사람과 둘이 아니어서 하나로 공해야 이 곤충 몸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곤충의 집합소예요. 그 모습은 인간이고 부처라고 하지만, 마음도 그렇다 하지만 마음도 천차만별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곤충도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그 곤충도 인간으로 화해서 하나가 돼야지, 그걸 조복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없고 살아도 산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어떠한 모습도 마다 안 하고 모습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뭐든지 아니 하시는 게 없이 하시되 함이 없이 하십니다.

이 모두를 따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남았습니까? 이 모습을 버리기 전에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있는 이 곤충도 다 하나로 부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병세, 어떠한, 즉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인과성, 유전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둘이 아니라 모두가 공심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곤충으로 남아 있으며 그게 어떡해서 죄로 남아 있으며 인과성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유전성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이게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